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본격 추진

여수·순천·광양시 중 한 곳
올 상반기 입지 결정
내년 착공 2022년 상반기 준공

전남도 제2청사인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여수·순천·광양시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상반기에 입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입지가 결정되면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부권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 문화 공간도 겸비한 통합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며 동부권 통합 청사 건립 계획을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심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3개 시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심사기준을 통해 입지를 고르고, 사업 규모 등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200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 풀 단을 구성한 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기준위원회(12명)와 실제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12명) 위원을 무작위로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전공대 입지 선정처럼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가산점 배점을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입지 선정과정에는 행정 수요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가 선정되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2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축 통합청사는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실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부지 1만평에 청사 3000평 규모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행정부지사를 두고 도정의 하나 또는 두 개의 국을 동부지역본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박 부지사는 "현재의 동부지역본부 청사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동부권 신청사가 단순 건물이 아닌 동부권 주민을 위한 따뜻하고 행복한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19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북구 석곡동 무등예문회원들과 왕버들음악회원들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 재난 초동대응 훈련 참가기관 확대

광주시는 재난이 생기면 신속하게 초동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 보고 훈련을 강화한다.

재난상황보고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상황전파훈련, 상황보고훈련과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긴급 재난문자(CBS)를 발송하는 훈련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우선 재난상황보고훈련 참가기관을 확대했다. 기존 시와 자치구는 물론,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훈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치구 소속 시설공단을 추가했다. 또 개별 시행해온 상황전파훈련, 상황보고훈련, 긴급 재난문자 송출훈련을 통합해 재난 발생 시 전파부터 보고 문자송출까지 한번에 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남구 백운동 일대 침수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재난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발굴해 훈련에 현실감을 더하고, 훈련 미흡기관은 목표 달성 시까지 반복 숙달훈련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난상황보고훈련을 통해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상시 5개 자치구와 시설공단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는 꾸준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분기별 상황보고훈련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 지원

전남도는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 연 1%의 저리로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실천 축산농가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다.

시설자금 지원 규모는 농업인·법인 20억 원, 축산물 유통업체 30억원 이내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원, 축산물 유통업체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축사 신규 설치·축산물 가공 유통·판매 등 시설자금에 191억원, 원료육 구입·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및 미생물 구입 등 운영자금에 9억원이다. 일선 시군과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 담당자, 융자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 관련 교육을 시행해 대출 실행률도 높일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친환경 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과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남도가 동물복지 녹색축산 실천 농가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시군과 함께 출연해 현재 898억원을 조성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목포 평화경제 중심지 육성하겠다"

김영록 지사 '도민과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목포를 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자, 평화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목포시청에서 열린 목포시민과의 대화에서 "목포는 4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 '맛의 도시 목포' 선포, 국제 슬로시티 가입 추진 등 획기적 발전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해안철도 건설, 목포~군산 간 서해안철도 건설, 목포신항 제2 자동차부두 건설, 2022년 전국체전 개최 등 현안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압해~화태 간 연도교와 천사대교, 칠산대교 개통 등 남해안 관광벨트가 구축되고 있고, 무안공항 이용객 100만명 목표를 바탕으로 목포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목포시가 건의한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교통 분산을 위한 도로 개설 지원과 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장 건립,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영암군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영암을 남도 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개설, 임성~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F1경주장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현안이 차질 없도록 돕겠다"며 "또 농어민이 잘사는 영암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교통 분산을 위한 도로 개설 지원, 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장 건립 등 목포시 건의사항도 적극적인 수렴 의지를 강조했다.

또 "대불산단에 3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환경친화형 LNG선을 대거 수주하는 등 공장 돌아가는 소리도 많이 들리는 만큼 고용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새마을장학금 폐지 조례안' 상임위 가결

광주시의회 행자위

논란을 빚어 온 '새마을장학금 폐지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 조례안'의 심의를 하고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연주·김광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안이 폐지되는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행자위는 이날 오전 조례안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해 오후로 연기했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 13일에도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려고 의원총회까지 열었다가 이들 두 단체 회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연기했었다.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난해 새마을장학금이 유신 시대가 남긴 적폐 유산이자 특혜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를 열어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날도 행자위 회의실 앞에는 조례 폐지 찬성 시민단체와 반대 새마을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75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에 김백수씨 임명

광주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에 김백수(59)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임명됐다.

김 사무처장은 19일 재단 이사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 본부장, 공단 인사부장, 광주 동부·서부·북부 지사장, 공단 본부 총무관리실장, 요양운영실장, 요양운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무처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협력·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